

韓國政治思想史研究 序說

孫 文 鎬*

<目 次>

- | | |
|-------------|-------------|
| I. 연구대상의 문제 | Ⅲ. 시대구분의 문제 |
| Ⅱ. 연구방법의 문제 | Ⅳ. 연구의 현황 |

I. 연구대상의 문제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무엇이 한국정치사상인지, 한국정치사상사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그리이스 로마의 都市國家시대에서 시작하여 로마와 神聖로마의 帝國시대를 지나서 民族國家의 시대로 이어지는 通說의 西歐정치사상사나, 封建天下의 시대로부터 專制天下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고 나름으로 체계지을 수 있는 中國정치사상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는 실로 지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¹⁾

물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韓國史의 邊方的 성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국가들은 대규모의 정복전쟁이나 인종이동으로 말미암은 문화적 융합과 확산을 통해 나름의 中心的 傳統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 중국은 일찍이 성숙한 문명을

* 서원대학교 교수

1) 서구정치사상사에 대해서는 G.H. Sabine(閔丙台·金榮國 역), <政治思想史> 上·下(서울: 율유문화사, 1963) 참조. 중국정치사상사에 대해서는 蕭公權(崔明 역), <中國政治思想史>(서울: 법문사, 1987) 참조.

토대로 독자의 중심적 전통을 유지해 왔다. 그에 비해 한국은 중국과 서양의 영향을 거의 일방적으로 받아 전통의 畵曲을 면치 못했다. 한국 정치사상 내지 정치사상사의 개념이 불명확한 근본적 이유의 하나가 거기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史의 邊方的 特殊性은 그 자체가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무릇 학문은 普遍性을 추구하나, 보편성은 특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無의미하다. 특히 인간과 사회의 역사에 관해서는 그렇다. 지금까지 정치사상사 연구는 餘他的 특수성은 무시한 채 서구적인 것에 보편성의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에 대한 반성에서 중국정치사상사 등의 독자적 연구가 이루어져 西歐中心的 偏見이 어느 정도 교정되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의 정치사상사는 고려되지 않는 등 아직도 보편성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한국정치사상사는 비교적 뚜렷한 문화적 인종적 독립성을 배경으로 어쨌거나 나름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서구정치사상사는 물론 중국 정치사상사에 대해서도 특수한 연구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전통이라는 것은 發見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創造되는 것이다. 전통은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 현상이고 정신적 현상의 핵심은 自由로서 批判的 創意的인 것이다. 전통은 吟味의 대상인 골동품이 아니라 생활의 잠재적 원동력이다. 전통은 과거에 대해 憧憬케 하거나 현실에 맹목적으로 追隨케 하는 퇴영의 무엇이 아니라 미래에의 진전을 뒷받침하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한국정치사상사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창조적 노력 즉 연구의 宋備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의 문제로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정치사상사의 始原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사상사 연구의 有의미한 素材나 자료 중 最古의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다. 엄밀히 말해 정치사상사 연구의 대상이라면 政治的 問題에 대한 어느정도 體系的인 反省과 思索이라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내용의 특정 사상체계, 특정인의 사상이 연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치사상의 등장에 앞서 그 바탕이 되는 무엇이 있다면 정치사상사 연구는 그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사상사의 경우 古神道가 바로 그것이다. 고신도는 한국의 원시종교들을 관통하고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上古代의 儀式, 신화 등에 나타나고, 권력과 국가 등 정치의 本質에 대한 나뉠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²⁾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대상으로서 고신도의 의미가 그것이 단순히 最古의 관념형태라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신도는 시대를 바꾸어 한 시대의 지배이념을 낳기도 했고, 민족적 위기상황에서는 민족自尊의 사상으로 부활되곤 했다. 신라의 花郎道가 前者의 例라면, 고려말 몽고의 종족적 위협에 직면해 단군을 國祖로 부각시킨 것이나 日帝 식민지배 前後에 단군숭배가 융성했던 것 등이 後者의 例다. 한편 고신도는 외래 사상이 한국化하는 바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예를들어 오늘날 불교 사찰에서 볼 수 있는 山神閣이나 七聖閣은 古神道와 불교의 접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고신도가 역사를 통해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유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구대상의 固有性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는 대상의 起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혼란을 면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혼란 내지 不進이 고유한 기원의 것인가, 아니면 外來的인 것인가의 기준에서 연구대상을 평가하려는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

2) 山川 靈星 등을 대상으로 한 多神的 祭天儀式이나 天神族의 후예로서 자연 만물을 통제했다는 檀君의 神話가 고신도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신권적 원시봉건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천신은 정점에서 諸神을 위계적으로 통괄한다. 신들은 부족의 상징이다. 천신의 후예인 단군족을 중심으로 부족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혈연으로 의제되었다. 玄相允, <朝鮮思想史>(서울: 민족문화사, 1978); 홍기문, <조선신화연구: 조선사료고증>(서울: 지양사, 1989); 洪淳稔, “原始生活에 나타난 한국의 固有한 思考와 思想”(上)/張秉吉, “原始生活에 나타난 한국의 固有한 思考와 思想”(下), 아세아학술연구회編, <韓國民族思想史大系>[概說編](서울: 형설출판사, 1979) 등 참조.

요하다고 꼽히는 道敎 儒敎 佛敎나 基督教 民主主義 등등이 외래적이라고 해서 한국정치사상사의 독자적 存立에 대해 懷疑하거나, 반대로 한국정치사상사 연구가 고유한 고신도와 화랑도 등을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는 견해들이 그 대표적인 例다.³⁾ 그러나 언급한 바 있듯이 정치사상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색과 반성의 흐름이다. 특정 사상들은 그 기원에 관계없이 정치사상사의 전개에 작용한다. 기원의 如何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정치사상사적 의미는 대체로 제한적이다. 도교와 유교는 중국에서, 불교는 인도에서, 그리고 기독교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각각 기원한 것이지만 한국에 傳來된 이상 한국정치사상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기원을 불문하고 고신도 화랑도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민주주의 등 모두가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신도 화랑도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민주주의 등에 관한 모든 것이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의 대상일 수는 없다.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사상사 연구라면 政治權力에 대한 認識과 추구하는 國家像이 어떠한가 등 정치의 본질에 관한 것을 초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질,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모든 것을 통괄하는 세계관 등이 그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초점이 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의 문제

以上과 같은 연구대상의 문제는 연구방법의 문제와 밀접히 관계된다. 우선 큰 문제로 한국정치사상사의 특수성과 정치사상사 일반의 보편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는 바, 그것은 특히 사회경제사와 정치사상사의 관계와 결부된다. 세계사의 발전법칙을 강조하는 사회경제사의 요소

3) 沈在龍, “韓國의 傳統思想”, 金泰吉·沈在龍·李容弼, <(增報版) 國民倫理原論>(서울: 박영사, 1985) 참조.

에 비중을 둘 경우 정치사상사 연구는 보편성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에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보편성이 강조되기 어려운 실정인 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⁴⁾ 한편 또 다른 방법의 문제로는 중요한 요소인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민주주의 등 外來사상의 내용과 의미를 한국정치사상사의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있다. 그리고 時代區分의 문제가 중요한 바, 편의상 그에 대해서는 節을 바꾸어 논하기로 한다.

물론 한국정치사상사는 정치사상사 일반의 보편성을 念頭에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편성은 특수성을 前提로 의미를 지닌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정치사상사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서구중심의 편견의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숙한 보편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국정치사상사의 특수성의 규명에 충실한 것이 온당한 듯하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렇다. 사실 보편적인 單一의 법칙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근대以後의 일이다. 資本의 법칙이 世界市場을 통해 傳統的 孤立 分散을 타파함으로써 보편적인 세계像이 형성되는 것이다.⁵⁾ 근대以前의 역사는 비교적 고립 분산의 전개를 보였고 따라서 그에 대해 보편성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편견을 助長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위험은 세계사의 역사발전법칙을 강조하는 사회경제사 중심의 정치사상사 연구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북한 학계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⁶⁾ 북한 학계는 원시공산사회—고대노예제사회—중세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발전법칙에 따라 한국史를 보고, 그에 입각해 한국정치사상사를 정리

4) 그 문제에 대한 일반론으로는 金雲泰, “韓國政治研究의 方法論”, 金雲泰의 공저, <[第2全訂版] 韓國政治論>(서울: 박영사, 1989), 제1장 제3절 참조.

5) 姜晉哲, “韓國史의 普遍性和 特殊性”, 韓國史研究會編, <韓國史研究入門>(서울: 지식산업사, 1981), pp. 31-43 참조.

6) 정진성·정성철·김창원 共著(도서출판 광주 편집부편) <조선철학사 연구>(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8) 참조.

하고 있다. 사회경제사적 발전은 각 단계의 모순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과정이고, 정치사상사는 계급투쟁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사상사는 각 단계에서 唯物論과 唯心論, 經驗論과 先驗論, 客觀論과 主觀論, 辯證法과 形而上學의 투쟁으로 인식된다. 유물론 경험론 객관론 변증법은 進步의 사상의 요소이고, 유심론 선험론 주관론 형이상학은 反動的 사상의 요소로서, 정치사상사는 진보적인 계급의 사상이 반동적인 계급의 사상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 학계가 그와 같이 나름의 분명한 시각에서 한국정치사상사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체계적인 通史가 없는 남한 학계를 생각할 때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우선 準據로 잡고있는 사회경제사적 발전법칙이 다분히 서구의 특수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한국사에서 그런 노예제사회나 봉건사회가 과연 있었는가가 심각하게 문제되는 실정이다.⁷⁾ 私的인 노예가 서구적 노예제사회의 根幹이라면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역사에서는 강력한 국가와 그에 隸屬된 존재가 보일 뿐이다. 그래서 ‘總體的’ ‘國家的’이라는 형용어가 첨부될 수 밖에 없었다. 봉건사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王朝시대가 봉건시대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多元的 分權的이었던 서구적 봉건사회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集權的인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中央集權的’이라는 형용어를 첨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예제적인 요소와 총체적 국가적 요소, 봉건적인 요소와 중앙집권적인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가는 斷定하기 어렵다. 특히 권력과 국가의 문제를 본질로 하는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학계의 시각은 그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치게 단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물론 경험론 객관론 변증법의 요소를 진보적인 것으로, 그에 대해 유심론 선험론 주관론 형이상학을 반동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정치사상사의 발전을 전자가 후자를 극복해 가는

7) 姜晋哲, 앞글; 李基白, “韓國史의 時代區分 問題”, 韓國史研究會編, 앞책, pp. 49-50 참조.

과정으로 인식하는 점이다. 그것은 前者와 後者의 관계, 그리고 진보와 반동의 개념 자체가 相對的이라는 사실에 소홀함으로써 정치사상사의 실재를 오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우선 전자 즉 유물론 경험론 개관론 변증법적 요소는 후자 즉 유심론 선형론 주관론 형이상학을 극복하고 나온 것임과 동시에 또한 전자는 다른 형태의 후자를 통해 성숙한다. 따라서 전자나 후자나 진보적인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粗野한 유물론을 유심론적으로 세련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평가는 단순치가 않은 것이다. 정치사상사가 권력과 국가의 문제를 본질로 한다고 보면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정치의 본질에 대해 비교적 성숙한 인식을 갖춘 유심론적 사상과 정치적 인식이 미숙한 유물론적 사상을 비교한다면 적어도 정치사상사의 기준에서 볼 때 전자가 진보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외래사상인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민주주의 등의 내용과 의미를 다루는 것이 연구방법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무릇 사상은 不變의 핵심적 요소를 지닌다. 그러나 사상 전체가 時空的으로 일정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도교의 先驅인 先秦의 老莊사상과 후에 그것을 종교화한 道敎는 내용이나 의미에서 다르다. 유교는 先秦의 孔孟과 荀子의 사상으로부터 漢唐代的 訓詁學, 宋明代的 理學과 道學, 清代의 考證學 등으로 발전하면서 내용과 의미를 달리해 왔다. 불교의 내용과 의미도 인도에서 小乘불교로 출발하여 大乘불교로 성숙한 뒤, 중국에 전래되어 敎宗불교와 禪宗불교로 발전하면서 달라졌다. 기독교는 로마시대의 原始기독교로부터 敎父철학과 스콜라철학을 통해 중세의 기독교로 발전한 뒤, 종교개혁을 계기로 舊敎와 新敎로 나뉘면서 내용과 의미를 다양하게 지니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시대에 출몰했다가 근대에 와서 부활된 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時空에 따라 의미와 내용을 달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내용과 의미의 다양성 문제는 외래사상의 경우 훨씬 복잡하다. 어떤 도교, 어떤 유교, 어떤 불교, 어떤 기독교, 어떤 민주주의가, 어떤 시기에, 어떤 세력에 의해, 어떤 식으로

傳達 受容되었고, 어떤 식으로 정착되었는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상이더라도 전달側이나 수용側이나에 따라 내용이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특히 注意할 필요가 있다. 무릇 어떤 사상이나 초창기에는 비판적, 혁신적 성향을 띠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順應적 보수적 성향의 것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상이 다른 공간에 전달될 때는 이미 숙성하여 순응적 보수적이 된 以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용측에서 볼 때는 전달측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그것이 내용의 選別 格義 등을 통해 비판적 혁신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상의 진보성은 수용 당시의 정치구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후의 시각에서 그전의 사상을 一意的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달과 수용에서 遲遞가 심했던 과거일수록 그렇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정치사상사 연구의 오류로는 朱子學的 정치사상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나 한국의 경우보다 변방적 고립성이 더욱 강했던 일본의 주자학적 정치사상에 대한 丸山眞男의 연구 등의 例를 들 수 있다. 북한 학계는 주자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한국정치사상사에 수용되고 전개되었는가를 충분히 고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자학 일반의 유심론적 성격에만 치중하여 그 한국정치사상사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高麗末 新興士大夫들이나 朝鮮中期 新進士林들의 주자학적 정치사상이 일반적으로 봉건사회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⁸⁾ 전달 수용 전개의 時空的 의미를 소홀히 하고 주자학=유심론=봉건사회옹호론이라는 圖式的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말 신흥사대부들의 주자학적 정치사상은 權貴들의 無道한 專橫에 맞서 통치의 公道를 제창했다는 점,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유교국가의 획기적 완성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조선중

8) 정진철·정성철·김창원 共著, 앞책, 제 4장 제 2절; 제 5장 제 3절 참조.

기 신진사림들의 道學 정치사상에서는 그것이 군주의 昏暴과 勳舊귀족들의 부당한 特權享有로 나타난 非유교적 현실을 비판하고 통치의 儒教化를 철저하게 추구했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丸山眞男은 德川幕府초기의 일본에 주자학이 성공적으로 수용되었던 배경의 하나로 社會安定化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주자학의 유교일반의 보수성이 그에 상응했다고 보았다.⁹⁾ 그러나 丸山眞男의 견해는 수용 당시의 주자학이 가질 수 있는 혁신성을 무시하고 주자학을 포함한 유교일반의 보수적 성격에만 착안한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時空에 따라 사상 내용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시 간과하고 완성된 중국에서의 주자학과 새로이 수용될 당시의 일본 주자학이 정치사상사의으로 동일한 내용과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던 것이다.

Ⅲ. 시대구분의 문제

시대구분은 通史的 연구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업적을 정리해 볼 때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는 통사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사상사 연구가 적잖게 있지만 거의 모두가 특정의 사상가 내지 집단 또는 시대에 한정된 것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 학계의 연구를 論外로 하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編, 〈民族文化史大系Ⅱ〉政治·濟經史(上)에 실린 金永斗, “韓國政治思想史”가 유일한 통사적 연구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의 문제를 논한 다음, 하나의 案을 제기하기로 한다.

김영두의 연구는 ‘古代 民族形成期の 政治理念’, ‘民族國家의 中世政治思想’, ‘近代期過程과 그 政治思想’이라는 篇次를 취했다. 거기서 나타나듯이 그것은 우선 고대 중세 근대의 일반적인 삼분법(엄밀히 말하

9)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研究〉(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80) 참조.

자면 고대에는 원시시대가 포함되어 있고, 근대는 黨爭과 實學의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시시대와 현대를 양단으로 하는 오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으로 한국정치사상사를 시대구분하고, 민족 및 민족국가의 형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어쨌든 거기서는 고대가 통일신라시대까지로, 중세는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전기까지로, 그리고 근대는 조선중기부터로 규정되었다.

김영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고대정치사상은 蘇途 신화 등의 내용을 원형으로 하고 외래사상의 加味를 받아 귀족적 군주정을 지향했다. 그 핵심은 자유민주적 이상과 민족·국가 형성의 현실적 요구라는 두 축이었다. 전자는 귀족적 자유, 후자는 군주적 통일로 구현되어, 양자의 결합이 귀족적 군주정의 민족국가를 형성시켰다. 통일신라가 그 기본형으로서, 그때까지가 한국정치사상사의 고대에 속한다. 민족국가는 고려에 와서 한층 성숙하고 조선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그것은 정치사상사적으로 고대정치사상에서 개별적으로 전개되었던 불교, 유교, 風水圖讖 등의 混合的 성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정치사상의 혼합적 성숙은 性理學을 통해 완결되었다. 김영두의 연구는 그 과정을 중세정치사상사로 규정하였다. 어쨌든 정치사상의 중세적 혼합과 통일일은 조선중기에 와서 士禍와 당쟁으로 균열을 노정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귀족적 군주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적 민족국가에 대한 지향이 이른바 實學을 통해 나타났다. 김영두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한국근대정치사상이 시작이다.

위와 같은 김영두의 연구는 통사적 시대구분을 제시한 거의 유일의 연구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민족국가의 지향이 빨랐다는 한국정치사상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거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역시 서구정치사상사의 시대구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蘇途 檀君신화 등에 나타난 원시적 민주주의의 유풍을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관련지워 설명하는가 하면,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에서 조선초기까

지의 정치사상사가 혼합적 통일을 특징으로 한다는 前提에서 그것을 서양 중세의 기독교시대에 대비시키는 동이 例다. 또 士禍와 당쟁을 서양 근세의 종교전쟁과 유사하다고 분석하는 것도 같은 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런 對比가 한국정치사상사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정치사상사의 특수한 실재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는 단점을 지닌다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제시한 例를 통해 말하자면 우선 蘇途와 단군신화에 담긴 정치사상적 요소는 민주적인 것이라기보다는 神政의 군주정의 것이었다. 또 그 민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원시사회의 遺風임에 비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王政 귀족정에 대한 평민신분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한편 儒敎의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는 고려 조선의 정치사상사는 서구 중세의 기독교적 통일과는 달랐다.¹⁰⁾ 서구 기독교시대 정치사상사의 핵심이 통일된 종교의 힘이 정치권력을 제약한 것이라면, 한국정치사상사에서 유교적 통일은 정치권력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두의 연구는 서양중세의 기독교시대와 상응하는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先入見 때문에 그런 사실을 간과한 듯하다. 그리고 조선중기이래의 사회와 당쟁을 서구 근세의 종교전쟁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서구의 종교전쟁이 절대군주국가의 형성을 둘러싼 갈등을 함축했음에 비해, 사회와 당쟁은 절대군주국가보다 오히려 성숙한 유교국가를 전제로 했고 또 국가 자체의 성격과는 직결되지 않았던 것이다.¹¹⁾

10) 고려와 조선의 정치사상을 그런 관점에서 연결시킨 연구로는 拙稿, “高麗末 新興士大夫들의 政治思想 研究—儒敎的 國家主義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90) 참조.

11) 사회와 당쟁은 유교국가의 爛熟期에 통치의 중심인 관료제의 부패를 막음으로써 건실한 유교국가를 유지하려는 의욕이 과열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당파주의로 흘러 일당 일파의 독재, 나아가 一門의 勢道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본다. 그로부터 유교국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懷疑가 나타났던 바, 실학이 그런 성향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나 당쟁에서는 국가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유교국가는 절대군주국가에 비해 이념 제도 등에서 성숙한 것이었다. 유교국가의 성숙성에 대해서는 위의 拙稿, 제 2장 참조.

한국정치사상사의 시대구분은 무엇보다도 권력과 국가 등 정치적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김영두의 연구는 위와 같이 한국정치사상사와 서양정치사상사를 무리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시대구분이 담아야 할 내용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대에 귀속시킨 통일신라와 중세에 귀속시킨 고려 조선은 권력과 국가 등에 관한 인식에서 그 前後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상대적 동질성을 지녔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사상사의 시대구분은 그것을 하나의 시대로 묶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의 새로운 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근대以後의 정치사상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 오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권력에 대한 合理的 現實主義의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 평등의 정치적 이념을 지향하는 민주국가의 건설이 근대정치사상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신분제적 한계속에서나마 合理的 道德主義의 인식을 바탕으로 仁政, 德治, 王道의 民本의 통치이념을 내세우는 官僚制的 君主國家를 만나게 된다.¹²⁾ 그 정신은 유교를 통해 體系化되었으므로 그것은 유교국가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을 儒敎國家主義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권력에 대한 超越的, 神秘的 인식과 함께 部族聯盟의인 封建制가 나타난다. 거기서는 권력과 그 正當性이 血統의 神聖性을 통해 인식되었고 그 신성의 관념체계가 이른바 고신도라고 할 수 있다. 인식의 신비적, 초월적 성격과 사회적 기초의 부족적 성격을 ‘原始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시대의 정치사상은 原始封建主義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정치사상사를 원시봉건주의, 유교국가주의, 민주주의

12) 유교국가주의의 정치사상의 합리적 도덕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의 합리적 현실주의의 관계는 서구정치사상사에서 고대 중세적 自然法의 관념과 세속화된 근대의 자연법 즉 自然權 관념의 관계에 대비시킬 수 있을 듯하다. 유교의 자연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J. Needham (李錫浩의 공역), <中國의 科學과 文明> Ⅲ(서울: 을유문화사, 1988) 제18장; 林孝善, <삼의 政治思想> (서울: 한길사, 1984) 참조.

로 시대구분하자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3세기까지의 역사에서 興亡盛衰한 古朝鮮 扶餘 三韓(國) 등의 정치사상이 원시봉건주의를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국가주의는 4~7세기의 삼국시대 중엽에 胎動하여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성숙하고 조선에 와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萌芽는 조선후기의 실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조선말에 開化사상을 통해 自由主義로의 방향을 정하고, 식민지시대에 전래된 社會主義와의 대립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시대구분案은 한마디로 권력과 국가에 대한 민주적 인식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둔다. 어쨌든 그와 더불어 한가지 중요한 것은 民族主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한국정치사상사의 중심 개념이 될 수 있다. 우선 김영두의 연구도 지적했듯이 한국史에서는 민족과 그것을 단위로 하는 민족국가의 지향이 유난히 빠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이다. 또 內的으로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일, 外的으로 從屬的 依存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세계共榮의 主役으로 도약하는 일 등 한국정치의 현실적 과제가 민족주의적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치사상사를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민족주의의 성숙은 민족內的으로 자유 평등의 민주적 질서를 내용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확산은 민족간의 自主 共榮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血緣的 共同體의 自覺에서 시작하여, 신분도덕的 文化共同體 意識의 단계를 거쳐, 민주적 질서의 政治共同體 意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것은 고립 분산의 세계, 事大字小的 제국주의의 세계, 자주 공영의 민족국가적 세계질서에 각각 상응한다. 그런데 혈연적 공동체와 고립분산의 세계로부터 신분도덕적 문화공동체와 사대자소적 제국주의의 세계를 거쳐 민주적 정치공동체와 자주

공영의 민족국가적 세계에 이르는 민족주의의 발전과정은 각각 원시봉건주의, 유교국가주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사상사의 민주주의적 전개와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정치사상사를 정리 하더라도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국민족주의의 과정이 한국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에 비해 특수하기 때문에 한국정치사상사를 권력과 국가에 대한 민주적 인식의 성장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V. 연구의 현황

위에서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의 문제를 논하고 나름의 시대구분案을 제시했다. 거기서 통사적 연구의 현황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제 시대별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조선시대까지만을 범위로 하여, 편의상 원시봉건주의, 유교국가주의, 민주주의라는 시대구분에 따른다. 그리고 대표적인 단행본과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다.

한국정치사상사에 국한시켜 볼 때 원시봉건주의시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¹³⁾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일반의 연구업적들 중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국가의 형성 발달과 성격에 관한 것이나 당시의 사상사적 자료인 원시종교 신화 등에 관한 것이 그에 속한다.

우선 정치사회사의으로 盧泰教, “國家의 成立과 發展,” 한국사연구회編, <韓國史研究入門>(서울: 지식산업사, 1981)이 개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白南雲, 孫晉泰, 金哲堧, 千寬宇, 李基白, 金貞培 등 上古史 내지 고대사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또 최근의 것으로는 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서울: 일지사, 1986)이 참고할 만하다. 그것은 국가의 형성에 관한 일반론과 중국의 상고사를 바탕

13) 鄭然植, “上古代 朝鮮의 政治理念에 관한 研究”(부산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83)이 있으나 필자가 구해 보지 못했음.

으로 한국 상고사를 참신하게 설명하고 있다. 金雲泰, “韓國政治의 狀況的 條件과 歷史·文化的 脈絡”, 金雲泰의 공저, <[第二全訂版]韓國政治論>(서울: 박영사, 1989), pp.95-107도 참고가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일반론에 따라 原始的 血緣的 공동체에서 人爲的 階級的 공동체 즉 국가로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 원시공동체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하다. 部族聯盟 城邑國家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연맹의 원리나 국가의 조직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여기서 원시봉건주의라고 命名한 것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상사의으로는 원시봉건주의가 上古代의 儀式 신화 등에 나타난 고신도의 시대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개설로는 우선 崔南善, 金載元 등의 선구적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金杜珍, “神話·佛敎·儒敎”(前掲<韓國史研究入門>所收)를 참고할 만하다. 玄相允, <韓朝思想史>(서울: 민족문화사, 1978)의 제1편 제1장 “神道思想”도 훌륭한 개설이다. 또 洪淳昶, “原始生活에 나타난 한국의 固有한 思考와 思想(上)”/張秉吉, “原始生活에 나타난 한국의 固有한 思考와 思想(下), 아세아학술연구회編, <韓國民族思想史大系>[概說篇](서울: 형설출판사, 1979)이 더욱 상세한 것으로서 도움이 된다. 한편 신화를 통해 민족사 국가사를 추적한 홍기문, <조선신화연구: 조선사료고증>(서울: 지양사, 1989)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교국가주의시대에 해당하는 연구는 비교적 많다. 그러나 대부분이 유교국가가 완숙한 조선시대에 몰려 있다. 고려시대에 관하여는 李熙德,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研究>(서울: 일조각, 1984)와 拙稿, “高麗末 新興士大夫들의 政治思想研究—儒敎的 國家主義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90)가 있다. 이희덕의 연구는 <高麗史>의 志를 분석하여 天文 五行과 통치행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정치사상의 구조를 밝혔다.

위의 줄고는 근대以前의 한국정치사상사에서는 중국정치사상사와의

연관속에서 官僚制, 郡縣制 등의 정치제도와 良賤制, 公田制 등의 사회경제제도를 갖춤으로써 상당히 성숙한 국가가 지향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줄고는 그것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교국가와 유교국가주의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그 성격을 比較史的인 관점에서 논하고, 고려말 신홍사대부들의 정치사상을 통해 유교국가주의가 명실상부한 통치이념으로 성숙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의 유교국가주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그러나 줄고가 앞부분에서 고려말에 이르기까지의 유교국가주의를 개괄하고 있으므로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초기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改正版]〉(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를 들 수 있다. 한영우의 연구는 조선이 고려말 신홍사대부들 중 “사대부대열에서 낙오될 처지에 있는 하층사대부들이 李成桂를 수령으로 하는 변방무사와 평민군사의 힘을 빌어 건설된 것”으로서 “혁명파의 개혁방향과 새 왕조의 통치방향은 사대부의 利害 뿐 아니라 무사층을 비롯한 국민각계각층의 利害를 좀더 폭넓게 조정하는 적극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혁명파의 그런 정치적 비전을 體系化한 것이 정도전의 정치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前期의 正統朱子學으로부터 근세의 實學을 거쳐 開化사상으로 이어지는 정치사상사의 과정을 분석한 朴忠錫, 〈韓國政治思想史〉(서울: 삼명사, 1982)는 조선시대 정치사상 연구의 壓卷이다. 그것에 의하면 조선의 주자학이 李滉의 規範主義로 부터 李珥의 狀況主義로 變容되고, 다시 柳馨遠 李瀾 洪大容 朴趾源 朴齊家の 실학을 통해 功利主義로 다양하게 변용된다. 丁若鏞의 실학은 以前의 다양한 공리주의를 하나의 뚜렷한 體系속에 용해시키고 그 위에 自律的인 인간像을 제시함으로써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崔漢綺의 經驗論的 現實主義는 실학의 그런 발전을 계승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렇게 성숙한 실학이 西勢東漸의 충격을 받아 朴泳孝의 個人主義와 俞吉濬의 進歩主義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개화사상으로 비약함으로써 한국정치사상사

는 본격적인 근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그런 推移는 세계질서觀에서 中華主義로부터의 脫皮, 主權平等의 근대적 세계관의 대두로 반영되었다. 以上이 위 연구의 骨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연구로는 金萬圭, <朝鮮朝의 政治思想研究>(서울:인하대학교출판부, 1982)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의 체제가 君臣과 班常의 抑壓差別的 位階질서를 바탕으로 한 군주 관료중심의 閉鎖的인 것이고, 주자학은 그것을 正當化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에 의하면 조선의 정치사상은 통치현실의 변화局面에 따라 建國期, 統治思想 修正期, 危期克復期, 實學期로 시기구분된다. 각 시기에서 체제를 擁護 補強하려는 논리와 비판하는 논리가 대립한다는 것이 연구의 틀이다. 건국기의 경우 鄭道傳과 金宗直의 정치사상은 체제 創建과 보강의 논리로서, 金時習의 정치사상은 民衆의 입장에 선 비판적 변동의 논리로서 각각 규정되었다. 수정기의 정치사상으로는 趙光祖 李彥迪 李滉으로 이어지는 理論的 道學의 보강 논리와 徐敬德 李珥의 氣論의 변동론이 대립한다고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위기극복기에는 비판적 논리가 朴世堂 등의 反주자학적 학문으로 나타나고 실학을 통해 더욱 성숙함으로써 자유 평등의 근대사상이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시대의 정치사상 연구는 대체로 조선후기의 실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실학이 민주주의를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뜻에서가 아니다. 실학이 유교국가에 대해 어느정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거기서 민주주의적 萌芽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민주주의는 조선말기의 開化운동과 민중운동에서 開花된다. 개혁지향적 관료들이 주도한 甲申政變이나 甲午改革, 東學을 내세운 甲午 農民蜂起, 在野의 지식인들이 주도하고 都市民들이 호응한 獨立協會운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해 갔던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시대의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로는 우선 실학의 功利主義, 自律的 人間像, 經驗論的 現實主義와 개화사상의 個人主義, 進歩主義를 연결시켜 본 前掲 박충석의 연구를 개괄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金漢植, 〈實學의 政治思想〉(서울: 일지사, 1979)은 주자학에 기초한 조선 체제의 閉鎖性과 中華主義를 변혁하려는 사상이 실학이라고 규정하였다. 실학은 민중을 비롯한 소의 세력의 人格性을 再인식하고, 民族個體性을 자각하고, 계층間 민족間的 有機體的 相補性을 강조함으로써 民主 民族主義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김한식의 연구는 柳夢寅 趙憲 李晬光 韓百謙 金堉 柳馨遠 尹鑾 朴世堂 洪萬選 등의 제 1기, 李重煥 李瀾 柳壽垣 愼後聃 安鼎福 申景濬 魏伯珪 柳得恭 李藥 洪大容 朴趾源 朴齊家 李德懋 李肯翊 禹夏永 韓致齋 權哲身 權日身 李家煥 成海應 丁若銓 丁若鍾 李承薰 李基讓 등을 제 2기, 丁若鏞 徐有渠 金正喜 李圭景 崔漢綺 李濟馬 등을 제 3기의 사상가로 분류하고 사상사의 성숙과정을 밝혔다.

개화사상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주도세력의 개화, 민중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制限 내지 立憲君主制로부터 共和制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인식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李光麟, 〈韓國開化思想研究〉(서울: 일조각, 1979); 姜在彥(鄭昌烈 역), 〈韓國의 開化思想〉(서울: 비봉출판사, 1981)을 들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은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連繫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고, 특히 후자는 그후의 愛國啓蒙運動까지 다룸으로써 사상사의 인식에 도움이 된다. 개화사상의 민주주의는 萬民共同會를 통해 본격적인 市民運動으로 발전했던 독립협회운동의 정치사상에서 획기적으로 성숙했다. 그것은 전개과정에서 議會設立과 심지어 共和制로의 변혁을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愼鏞廈, 〈獨立協會研究: 獨立新聞·獨立協會·萬民共同會의 思想과 運動〉(서울: 일조각, 1976); 韓興壽, 〈近代韓國民族主義 研究〉(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7)가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東學사상은 유별나게 主體性을 강조하고 갑오농민봉기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동학의 정치사상을 통해 민중의 압도적 부분인 農民들의 自生的인 민주주의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학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로는 申福龍, 〈東學思想과 韓國民族主義〉

(서울: 평민사, 1976)가 대표적이다. 신복룡의 연구는 동학이 個人의 人格의 가치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여 身分打破와 兒女子의 人權伸張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民權主義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거기서 민권주의는 민주주의의 조짐스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민주주의적 지향성에서 동학사상과 개화사상은 相通한다. 그러나 개화사상이 일반적으로 朝野의 지식인과 도시민중들을 주체로 한 것임과는 대조적으로 동학사상은 농촌사회에 뿌리를 뚫음으로써 兩者는 표현에서나 운동에서 갈등을 드러냈다. 그런 관계를 포함하여 조선말기 사상의 諸조류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대표적 연구로는 金榮作, <한말내서날 리즘연구: 사상과 현실>(서울: 청계출판사, 1989)을 들 수 있다. 김영작의 연구는 조선말기의 사상적 과제가 似而非형이 아닌, 진정한 민족의 統合을 달성하는 것이었고, 각각의 사상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일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서 진정한 통합이란 자유 평등의 민주적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조선말기의 사상 중 개화사상, 동학사상과 竝列的으로 전개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衛正斥邪사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정척사사상은 생명력을 결여한 봉건적인 殘滓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말기의 민족적, 국가적 위기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었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그것이 일제의 침략에의 즉각적이고도 극렬한 저항의 하나였던 義兵운동의 기초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어쨌든 그런 맥락의 연구로는 崔昌圭, <近代韓國政治思想史>(서울: 일조각, 1972); 李澤微, “朝鮮後期政治思想研究: 李恒老와 金平默의 斥邪思想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83); 金鎬城, <韓末義兵運動史 研究>(서울: 고려원, 1986)가 있다.